

## 선교편지 24-1)

주안에서 콩고선교 동역자된 여러분께.

주님의 선한역사가 콩고선교 동역자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사역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이도항, 김소영선교사입니다.

###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서구 열강이 정복하지 못한 한 가지 :  
“말라리아 모기”  
“말짱센타” - 말라리아 장티푸스 센타  
사역을 시작한지 올해로 11년이 되었다.  
작은 보건소이지만, 이 보건소는 그 자체  
사역뿐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동진료)을 계속하게 해 주는 중심,  
동력이 된다.. 지난 2023년 의료선교를  
돌아보았다. 전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연간 24회로 1,546명 진료를 하였고 그중

58%인 790명이 말라리아였다. 이들은 감사하게도 진료를 받고 말라리아 약을 먹고  
회복되었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무상구마을, 블람뱌마 마을, 미텐디 마을, 쌍필마을  
외에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카파와 세계세계 마을에도 2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먼저는 이틀전에 방역팀이 가서 마을 집집마다 방역을 해주고, 그 다음  
진료팀이 나간다. 주님의 긍휼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 <미국 선교부흥집회, 2024년 2월 9-11일>

5개월 전, 콩고에서 일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시애틀(올림피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콩고 선교에 참여,  
동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는 분이였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을  
하셨습니까?”

선교훈련 동기였던 목사님께 추천을 받았고, 내가 다른 교회에 보낸 콩고선교소개영상을  
보았는데, 그 선교적 비전이 목사님과 맞았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다.  
“교회에 와서 삼일동안(4회) 선교부흥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의 마음이 분주해 지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국, 한번도 해보지 못한 선교부흥 집회인도 그리고 구해야 할 겨울  
옷들”

그러나, 나의 부담보다 더 따라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사실만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 믿음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관은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콩고에서 왔고, 콩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얼마나 콩고에서 사역했냐고? 나는 18년동안 사역했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힘들지 않았냐고? 말하며 빨리 수속을 진행해 주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역시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보는 목사님은 나를 마음껏 안아주었다. 목사님은 후배인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대해주셨고 그 성실한 환대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4번의 집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가운데 맡겨졌다. 콩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누었다. 콩고현지 성도들은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났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어떻게 콩고를 선교지로 정하게 되었는지?” “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현지교회 예배중에 보이는 성도들이 입은 옷이 너무 화려한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모든 시간, 시간이 은혜였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갔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로로 준비해 주셨고 나는 낯선 만남을 두려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환대로 내 마음을 치유하셨다.

집회를 마친 다음날, 나와 아내, 그리고 루지는 흰눈을 보았다. 루지는 11년만에 태어나서 처음보는 흰눈이었다. 그 하얀 눈을 바라보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여, 감동으로 남는 것 같았다.

#### <가정예배운동>

콩고 현지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가정예배이다. 주일학교 교육 1시간으로는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시간, 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현지교회 리더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한 방향으로의 오랜순종만이 인생의 의미있는 결과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현지사역자 블레즈 가정, 가정예배 모습>

첫째 산지가 제작년에 케냐에 있는 RVA, 선교사자녀학교로 떠났다. 돌전에 콩고에 와서 15년을 콩고에서 지냈는데 이제 곁을 떠나게 되었다. 첫째가 떠나게 될 것을, 그가 떠나기 1년전에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해지게 되었다. 이제 1년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가족안에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 그것은 가정예배이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3곡의 찬양,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1장 통독, 그리고 기도, 이렇게 35년간 가정예배를 드렸다. 신지와 남은 1년동안 가정예배때 더 열심히 성경을 나누었다.

-떠나기 이틀전에 “아빠, 제가 떠나기전에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기도부탁을 했다.

“아빠, 엄마 제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쪽 복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갔다.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후에 물어보니, 복음을 들은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이야기야. 내가 이 책(요한복음)을 읽고 너와 대화나누고 싶어.”

그때 그 친구가 회심을 한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그 안에 심겨졌고, 그것이 언젠가 자라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는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감사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예배로 인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기도제목에서 선교지 필요- 학교 마당에 물이 가득차서 학생들의 불편(왼쪽 사진)하여 보도블럭이 필요-를 나누었는데, 응답이 되어 보도블럭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오른쪽 사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도로 콩고라는 산지를 정복하자!!>

1. 이 땅 콩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없고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묶고 있는 불신, 부정부패, 그리고 굶주림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나타나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온 백성들이 보고 주를 경외케 하옵소서.
2. 이 땅 콩고에 세워주신 미션 메백(사랑받는 자의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신앙교육(말씀묵상, 가정예배)을 통해서 다음세대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3. 6명의 목회 후보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빛이 이 땅에 가득 비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네번째 개척한 교회인 선한교회의 건축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땅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쌍필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민주공화국

이도항, 김소영 선교사 올림.